教育의 국제경쟁시대와 大學評價認定制

李 鉉 淸
(大敎協 高等敎育硏究所長)

1. 序 言

우리는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있다. 21세기는 世界大學의 時代라 할 수 있고 變化와 進步의 世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科學과 新技術이 지배적인 경향으로 대두될 것이며 세계는 공통된 문화와 공통적인 교육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확산될 것이다. 특히 大學은 國際化와 開放化, 脫制度化와 多樣化의 특성을 지니게 될 것이며 大學敎育도 이러한 變化의 場이 될 것이다. 더구나 21세기의 대학은 '전환대학'(trans-university), '유동대학'(mobile university) 그리고 '고객중심대학'(client centered college)의 형태가 될 것이므로 그 근본 특성에 있어서 多樣性과 特殊性, 專門性과 開放性,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욕구에 따라 대학의 프로그램과 기관의 風土가 결정지어지는 형태가 지배적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대학은 '質과 專門性'에 의해 경쟁과정을 거치게 되고 상호경쟁체제 속에서 생존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시대를 맞게 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대학이 나름대로의 특성과 역할분화 그리고 고객중심체제를 갖출 때 성장이 가능하지만, 기존의 사고와 기존의 프로그램 등의 경직된 체제로서는 존립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이 국제경쟁시대에 대비한 질 관리(quality control)를 하는 문제로서 이러한 질관리는 大學評價를 통해서만 객관적인 認定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국제경쟁시대에 대비한 대학교육에 관하여 논하면서 대학평가인정제의 의미와 기능에 관해서 다루고자 한다.

2. 國際競爭時代와 大學

21세기는 국제적 교류와 지역적 블록화가 보편화될 전망이며,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측면과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동일하다 하겠다.

특히 개발된 국가와 개발도상국가, 그리고 서구사회와 동양권사회 간의 교류와 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국제적 관계의 변화에 대한 예측은 전자혁명과 통신혁명의 부수적 결과이기도 하지만, 國家間 地域間 協力體制의 活性化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과 변화의 추세를 감안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교육개방과 국제적 교육협력이 증대될 것임을 알 수 있다. 國家間의 敎育協

力은 단기적 차원에서는 협력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보면 경쟁의 고착화 현상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敎育的 開放은 교육기관은 물론이려니와 교육의 수혜자들인 학생, 학부모들에게도 매우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한마디로 國際競爭時代에 돌입할 것이다.

국제경쟁시대의 대학은 그 기능면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大學敎育의 質管理와 內容의 多樣性이 견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학교육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 첫째는 문화전수 및 창조의 기능으로서 전통적 고유 문화와 사회적으로 승인된 규범문화를 후세에 전수시키고 시대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재창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UR에 따른 교육개방이 이루어지고 국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면 그 기능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된다. 특히 외국의 유수한 대학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文化의 多國化와 文化內容의 多文化的 特性을 배제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문화전수는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내용의 전수라기보다는 西歐化와 國際化된 文化의 전수도 불가피하리라 보여진다. 이 점에서 볼 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와 그 사회구성원의 가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합하고 재창조하는 기본적 기능에 있어서 변화가 예고된다. 따라서 國際競爭時代의 大學은 교육프로그램과 그 내용인 文化的 경쟁이 불가피하다 하겠다.

이 점에서 교육내용과 교육과정(educational process)에 관한 질적 관리체제가 주요한 과제가 된다.

두번째의 기능인 選拔과 分配의 기능에서도 入學과 卒業 그리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人力을 배출하는 기본체제에 변화가 예고된다. 종래의 경우에는 내부적인 경쟁체제에 불과하였지만, 국제화와 개방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야말로 국제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됨으로써 대학의 분배와 선발기능에 큰 변혁이 예고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大學入試에 시달리고 있고 大學定員보다 대학지원자가 많은 까닭에 입시지옥이라 지칭될 정도로 입시경쟁이 심화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인구의 변화추계를 보면 2000년 이후에는 대학정원과 대학지원자의 수가 동일해지게 되고 2000년대 이후에는 지원자수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들은 학생유치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모든 대학들이 지금처럼 학생확보에 신경을 쓰지 않고 기존의 커리큘럼과 기존의 학교운영에 의존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교육의 질과 교육내용의 우수성을 확보해야만 大學의 生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국제경쟁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운영이 우수하고 특성있을 때 大學의 成長이 가능할 것이지만, 고착된 사고와 대비책 없는 운영으로는 국제경쟁시대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세번째로 二重文化的 社會化(bicultural socialization)와 관련된 문제로서 국제경쟁력에서 뒤지게 되면 자연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대학교육이 특정문화와 특정국가에 예속되는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나친 문화쇄국주의도 문제이지만, 개인이나 국가·사회적 차원에서의 특정 외래문화나 특정 외래 교육 내용에 의한 편향된 사회화는 자칫 '국적없는 인간'(homeless person)을 배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제경쟁력은 결국 체제, 과정, 구성원들의 제반 특성과 연관되고 교육 수혜자들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선별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국제경쟁화시대에 돌입하게 되면 대학의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일부 기존대학의 위축, 일부 대학의 학생부족현상, 일부 대학 졸업자의 취업불능현상 등의 결과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국 국제경쟁화의 전제는 교육개방에 있기 때문에 교육개방에 의해 우리나라 大學敎育의 質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도 다양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극단적인 예일는지 모르지만 外國大學의 分校가 확산되고 선도적 대학들이 앞을 다투어 협력프로그램이나 공동학위과정, 프로그램협약, 특정분야 공동운영, 학위교류 및 인적 물적 교차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의존할 때 일부 후발대학이나 지방소재대학의 경우는 살아 남기 위한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외국 유수대

학들과 우리나라의 선두그룹들은 오히려 다양하고 경쟁력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기여를 할지 모르지만, 대다수 대학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大學敎育이 市場化하는 敎育産業(educational industry)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개방후의 국제경쟁력 제고이며, 이 국제경쟁력의 신장은 바람직한 교육내용과 높은 교육의 질 그리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학습자중심 커리큘럼의 설정 등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의미는 크다 하겠다.

3. 大學綜合評價認定制의 意味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관리의 문제는 국제경쟁시대의 대학들에게는 주요한 관심사이다. 미국의 평가인정제도(US accreditation system), 영국의 대학보조금위원회(university funding council), 일본의 대학평정협의회(Japanese university accreditation association) 그리고 북구라파의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제반 평가제도, 그리고 각 전문단체중심의 전문영역의 평가인정이나 질관리제도 등이 이러한 관심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각국의 경우 고등교육의 성패가 국제경쟁에서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대학 자율적인 규제차원을 넘어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립하기 위한 평가인정은 필요하다 하겠다. 더구나 국제경쟁화사회에서의 대학의 존립여부와 성장발달은 단순한 체제의 옹호유지나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 쇄신과 개혁 그리고 교육욕구충족 등의 제반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도입과 이 제도에 의한 대학평가에 대해 갖는 사회적 의미는 중요하다 하겠다.

大學評價認定制度를 도입하는 근본목표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질향상을 위한 자기진단에 따라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리라는 데에는 異論이 없다.

그러나 대학의 질을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시된다. 일반적으로 大學의 質은 몇 가지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첫째는 탁월성(excellence)이 유지되어야 하며, 둘째는 대학구성원의 자아실현의 기회가 극대화되어야 하며, 셋째는 사회적으로 적합성(social relevance)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3가지 관점이 유지될 때 대학교육의 탁월성이나 질 관리가 되었다고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질관리의 기제가 대학평가인정제라 할 수 있다.

대학평가인정제의 기본 哲學과 目的은 결국 대학교육의 수월성 추구에 있으나 보다 더 분석해 본다면 ① 秀越性 追求, ② 多樣性 伸張, ③ 自律性 擴大, ④ 效率性 提高 등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大學綜合評價認定制는 국제경쟁사회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기본철학과 목적이 國際競爭力伸張에 있다 하겠다.

첫째,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통해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제역할이 가능하다 볼 수 있다. 각 대학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하고 기관간의 선의의 경쟁분위기를 조성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즉, 각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을 높이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교수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의 기본적인 질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차원에서 본다면 '大學基本學力'(college minimum academic achievement)을 확보하고 이의 바탕 위에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한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른 국제경쟁시대에서의 대학의 기본기능에 변화가 불가피한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과 함께 기본적인 학력신장 등의 대학교육의 질관리의 주된 기제로서 大學評價認定制의 意味가 부여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대학체제와 체계의 측면에서 定型化된 획일주의적 속성을 탈피하지 못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대학체제와 체계, 그리고 이의 운영면에서 中央集權化的인 성향에서 탈피할 수 없었고 그 성장과정에서도 획일적 면모를 벗어나지 못해 왔다.

특히나 종합대학지향 성향이나 일류대학 의존

성향, 수동적 관리 모형 등이 이러한 획일화와 몰개성화의 원인이 되어 왔고, 정직하게 말해 외부의 자극과 변화유도가 없는 한 이러한 속성에서 탈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합평가인정제의 사회적 의미는 크다 하겠다. 즉, 교육에서 필수적인 地域社會의 要求나 構成員의 要求, 設立者의 취지와 교육관에 따른 要求,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운영에 의한 교육잠재력의 개발 등이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 의해 점검되고 분석되어 자기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사회적 의미는 크다 하겠다.

셋째, 자율성의 신장을 위한 기제로서의 의미이다. 자율성은 스스로의 자기 통제적 결정과 운영이라 할 수 있다. 自律은 成熟과 自己統制能力 및 效率的인 相互協力 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大學成熟水準(college maturity level)이 대학종합평가인정제라는 기제를 통해 점검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의미는 크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의 성숙관념도 중요하지만, 外部로부터의 성숙에 대한 인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大學綜合評價認定은 이러한 관점에서 自律을 부여하는 전제가 될 수 있고 스스로 自律에 대해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대학은 교육, 연구, 봉사를 하는 교육기제(educational mechanism)이며 규범적 조직체이므로 어떤 사회체제보다 성숙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가장 효율적인 교육은 계획, 운영, 평가의 자율성 부여에 있다 하겠다.

따라서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통해 결과와 과정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自律性 伸張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넷째,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대학의 효율성 신장의 기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대학은 投入—産出의 體制이므로 투입과 산출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내용에 있어서 다양성을 유지한다 하여도 그 운영이나 과정적 효율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질보장이 이룩될 수 없다. 이 점에서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의미는 과정적 효율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결국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目的은 대학교육의 수월성 추구와 질 개선, 대학의 책무성 수행,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학문의 자유 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경쟁시대의 대학은 결국 수월성(excellence), 책무성(accountability), 자율성(autonomy)의 정도에 의해 경쟁능력이 결정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3요소의 수준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적절한가? 즉, 사회적 적절성이 중요시될 것이며 또 어떻게 개인의 학습자에게 적합한가와 관련된 교육목구의 적합성, 그리고 어떻게 目的과 過程 그리고 內容에 있어 상호책임성을 지니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협력체계화되어 있는지의 적합성(relevance), 책임성(responsibility) 그리고 피드백되고 점검되는지의 점검활동(review) 등이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 의해 점검될 때 국제경쟁시대에 대비한 대학교육의 질 향상이 도모될 수 있다. 이 점이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커다란 의미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의 평가는 여러 나라에서 大學社會의 自己統制的 協力모델로 정착되어 왔으며 大學間 協力이나 大學敎育의 質 그리고 운영합리화를 보장하기 위한 자기통제 또는 相互扶助의 한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대학평가인정제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대학간 협력기구인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도하는 自生的이고 外部統制를 배제한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大學綜合評價認定制는 1994년부터 실시하여 7년주기로 2000년에 전국의 4년제대학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는 국제경쟁시대에서 필수불가결한 기본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이 확립되리라 기대된다. 어차피 국제경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內部的 경쟁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조기정착을 통한 자기분석과 자기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종합평가인정제가 대학사회에 주는 의미가 지대하고, 인정함으로써 사회에 주는 의미 또한 크기 때문에, 그 기준과 절차 그리고 결과의 공표에 있어서 신중함과 많은 연구와 재점검이 요청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세심히 고

러되어 많은 노력과 개선이 이루어져 왔고 준거가 확연한 인정절차와 기준이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대학종합평가인정제가 갖는 대학개혁과 대학발전의 의미 때문이다. 대학종합평가의 社會的 意味와 관련하여 평가항목의 내용을 定性的 指標와 定量的 指標로 구분하고 있고 대학의 질과 발전을 겨냥하여 意圖的 指向水準(optimal level)을 준거로 삼고 있다. 또한 대학의 二元體制的 특성을 감안하여 機能的 체계(교육, 연구, 봉사)와 支援體制(교수, 시설, 설비, 재정경영) 등에 관련된 항목을 그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평가인정제가 지니고 있는 의미에 충실코자 하였다.

앞서 지적한 종합평가인정제의 사회적 의미가 중요한 까닭에 평가기준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조건의 일반적 상황이나 대학발전지표에 준거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결국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社會的 意味는 大學敎育의 質과 大學體制의 效率性과 관련되어 있으며, 인정 자체가 교육수혜자들에게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경쟁시대에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自國內 경쟁뿐만 아니라 國家間 경쟁에까지 확대되는 시점에서 평가인정제는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국제경쟁시대에 필요한 대학개혁과 대학정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대학평가인정제는 국제경쟁시대의 대학정비와 大學改革을 위한 機制가 될 것이다. 이 점이 이 제도가 갖는 큰 의미라 할 수 있다.

大學綜合評價認定制의 국제경쟁력대비를 위한 기제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수월성추구
다양성신장 ＞효율성제고→질 확보→경쟁력 제고
자율성확대

4. 結 論

지금껏 국제경쟁시대의 대학기능과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른 대학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評價認定制의 社會的 意味를 논의해 왔다. 결국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국제경쟁의 시대를 대비한 大學改革의 기제가 될 것이며, 그 내용이나 평가의 철학에 있어서도 大學의 體制와 體系의 改革과 관련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大學評價認定制는 규제의 기제가 아니라 촉진의 기제이며, 선별의 기제가 아니라 동반의 기제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평가 그 자체는 自己分析의 準據가 되며, 자기평가(selfpaced-assessment)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평가에 대한 저항이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evaluation phobia)이 있을지라도 경쟁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때 평가는 시대의 요구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사회는 생성과 소멸의 지난 과정과는 달리 자기의 재생산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自己再生產過程에는 말할 나위 없이 改革과 創造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경쟁시대, 특히 국제경쟁시대에서 대학존립의 관건은 자기재생산과정에서의 개혁과 수월성 제고라 할 수 있다.

평가는 자기점검의 시발점임과 동시에 자기개혁의 기점과 관련된다. 특히 UR 등의 개방화에 따른 文化開放, 制度開放, 意識開放 등에 대비하지 않는 한 대학의 앞날은 단순하고 평탄한 여정이 될 수 없다.

대학평가인정제란 앞서도 논의한 바대로 대학의 교육활동을 종합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평가하고 목적성취와 질적 균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總體的이고 基本的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때 국제경쟁시대에 대비한 질적 균등의 최소기준을 확보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평가인정제는 會員大學들의 합의에 의해 도출된 대학목표, 교육내용, 방법의 적절성, 교육·연구·봉사활동의 질과 산출, 학생, 교직원, 시설 및 행·재정에 관한 제 기준을 개별대학이 충족하고 있는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확인·분석한 후 평정하여 합리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공식적인 判定을 하고, 社會的으로 認定받음으로써 대학 스스로 발전의지와 개선 노력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학생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열악한 교육조건과 부실한 교육의 질 속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대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제역할을 하며,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대학의 특수성과 사회적 평판을 동일시 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하고 대학의 公共性과 責務性을 증진시키는 기제로서 대학평가인정제는 필요하다.

이미 앞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국제화시대에 돌입한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결국 '협력과 경쟁'의 양축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협력이든 경쟁이든 간에 질적 수월성과 자율성 그리고 다양성 여부가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관건임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자율과 수월성, 다양성과 전문성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율성과 사회·국가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책무성 등은 국제사회에서의 대학발전 필수조건이라 볼 때 평가인정제도를 통한 자기점검과 스스로의 變革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위에 제시된 여러 특성은 대학평가인정제에서 기대할 수 있는 ① 목표관리기능, ② 기획조성의 기능, ③ 정보제공의 기능, ④ 자율적 통제의 기능, ⑤ 자극촉매의 기능, ⑥ 공공적인 인정의 기능, ⑦ 선별적 지원의 기능 등에 의해 경쟁체제와 경쟁과정화로 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다.

대학은 사회·국가·민족의 요체이다. 그러므로 국제경쟁체제 속에서의 우열 여하는 한 민족과 국가 그리고 사회전반의 장래와 유관하다. 이 점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점검의 기제로서의 평가인정제는 그 의미나 기능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21세기의 대학개혁을 위한 도구(tool)이다.

이때 더욱 중요시되는 것은 앞으로 대학평가인정제가 어떻게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정제도를 통해 각기 대학들이 어떻게 자기 개혁과 자기발전책을 모색하느냐의 문제이다.

결국 평가가 사회적으로 승인된 대학교육의 여과장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내부의 개혁'과 '국제적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기제가 될 때 국제경쟁시대를 대비한 대학교육에 관한 염려는 불식되리라 본다. ☛